
		<h1>보 도 자 료</h1>			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총 2쪽	
배포일시	2019.9.10(화)	담당부서	LA한국문화원 세종학당		
연락처	323-936-3025/seung822@kccla.org	담당자	노승환		

미국에 첫 소수계 언어 기념일 ‘한글의 날’ 지정

9.9(월)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회에서 ‘한글의 날 지정 결의안 (Assembly Concurrent Resolution 109)’이 통과되어, 미국에서 처음으로 소수계 언어 기념일인 ‘한글의 날’이 생겼다.

ACR 109는 지난 6월 27일 오렌지카운티의 쿼크-실바 하원의원과 최석호 하원의원, LA의 미겔 산티아고 하원의원이 함께 발의했다.

동 결의안(ACR 109)은 지난 8.30(금) 실시된 주 하원 전체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, 9.9(월) 열린 캘리포니아 주 상원 의회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되었다.

한편, 주LA총영사관은 LA한국문화원, LA한국교육원과 공동으로 쿼크-실바 하원의원과 최석호 하원의원, LA의 미겔 산티아고 하원의원 공동발의로 추진된 ‘한글의 날’ 결의안에 대해 캘리포니아 한글학교 및 교직원, 세종학당, 각 대학 한국어 교육부서, 한인회 등 주요 한인단체

들과 함께 결의안 통과에 필요한 지지서한 보내기 운동 독려, 미주지역 내 한국어 학습자 수강생 통계와 한글날 영문 설명서 등 자료 제공, 온라인/오프라인 청원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한 결과 8.30(금) 하원을 통과하였다.

아울러, 이후 상원 통과 과정에서 Tom Umberg 상원의원(책임보고관), Holly Mitchell 상원의원 등을 접촉하여 결의안의 조속한 처리 협조를 요청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여 회기 종료를 수일 앞두고 9.9(월) 상원에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.

박위진 LA한국문화원장은 “한글의 날’ 지정 결의안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 주 등으로도 관련 지정안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, 향후 LA한국교육원, 세종학당 등 주요 유관기관 및 한국어 교육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어말하기 대회, 한글 관련 영화 상영회 등 다양한 한글관련 기념행사를 준비할 예정이다”라고 밝혔다. / 끝/